

처음엔 ‘아, 전형적인 도시 사람이 시골로 내려가서 치유받는 이야기구나’ 싶었다. 그런데 읽어보니 전혀 뻔하지 않았다. 완주 마을은 단순히 평화롭고 고요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에도 복잡한 사연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이야기가 얹히면서 예상 밖의 결이 만들어졌다.

특히 인상 깊었던 캐릭터는 중학생 양미였다. 춤을 좋아하고 슬픈 이야기는 싫어한다는 이 아이가, 혼자서 계속 춤을 추는 장면들이 마음에 오래 남았다. 왜 춤을 추는지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는다. 그냥 춤을 춘다.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서, 혹은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아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내 모습이 같이 떠올랐다.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직장에서도, 친구들과 있을 때도, 가족들 앞에서도 계속해서 문제 없는 척, 다 잘하고 있는 척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닐까. 사실 속으로는 가끔 멈춰서 쉬고 싶고, 내가 정말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고 싶으면서도, 멈추는 순간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은 불안 때문에 계속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책에서 계속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소리’와 ‘목소리’다. 일하면서 나도 목소리에 대해 생각할 때가 많다. 민원인을 상대할 때는 최대한 친절하고 공정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한다. 상급자 앞에서는 공손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동료들과는 편안한 목소리를. 그런데 가끔은 내 진짜 목소리가 뭔지 모르겠을 때도 있다.

완주 마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것이 때로는 춤으로, 때로는 요리로, 때로는 그냥 누군가 곁에 있어 주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완주 마을 자체가 하나의 캐릭터처럼 느껴졌다. 이 마을은 누군가를 억지로 달리라고, 달려야 한다고 재촉하지 않았다. 그냥 거기 서서 “여기 좀 앉아서 쉬어가”라고 말해주는 것 같은 곳이었다.

솔직히 나는 요즘 늘 ‘더 해야지’, ‘더 열심히 살아야 해’라는 생각으로 살았다. 주변에서도 “당연히 지금보다는 더 노력해야지”, “자격증이라도 더 따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을 듣다 보면, 지금도 나름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늘 무언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